

“헤쳐모여식 신당창당 불가피” 고전 “내달 국민통합 신당 창당”

광주·전남 與의원 대다수 “민주·개혁 대통합”... 일부는 관망

광주일보, 정계개편 조사

정계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여권이 '통합신당파'와 '재창당파'로 갈려 갈 것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의원 13명 가운데 다수인 8명이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고 민주세력 대통합을 이루는 '통합신당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일보가 2일 광주·전남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정계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 양형일(광주 동), 김동철(광주 광산), 염동연(광주 서 갑), 김태홍(광주 북), 김성곤(여수 갑), 주승용(여수 을), 우윤근(광양·구례), 유선호(영암·장흥) 등 8명의 의원들이 통합신당론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지병문(광주 남구), 강기정(광주 북 갑), 서갑원 의원(순천시), 이영호 의원(강진·완도) 정동채 의원(광주 서 을) 등 5명은 정계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통합신당론에 공감한다고 대답한 국회의원 대부분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을 위한 통합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재창당론 및 당 사수론과 관련, 이들은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 및 관심을 높이기 어려워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은 “정권재창출은 역사의 후퇴를 막기 위한 중차대한 일이며

단순한 정치공학적 욕심으로 꺾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양형일 의원도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통합신당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동철 의원은 “온건·합리적인 개혁세력이 아닌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에 일부 있다”며 “모두 다 통합신당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분

당도 각오하고 있는 듯한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지병문, 강기정, 서갑원, 이영호 의원 등은 정계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은 재창당론 및 당 사수론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갑원 의원은 “정계개편 논의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통합신당론을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친노 직계로서 곤혹스러운 입장을 나타냈고 정동채 의원은 “정계개편에 대해 뭐라 딱히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권 신당 안들어가...진보·개혁 아우를 것”

고전 전 국무총리는 2일 “국민대 통합신당 창당은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적 요청”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께 창당작업을 본격화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고전 총리는 이날 청주에서 열린 충북 미래희망포럼 창립기념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도 실용개혁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신당 창당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자 한

다”며 이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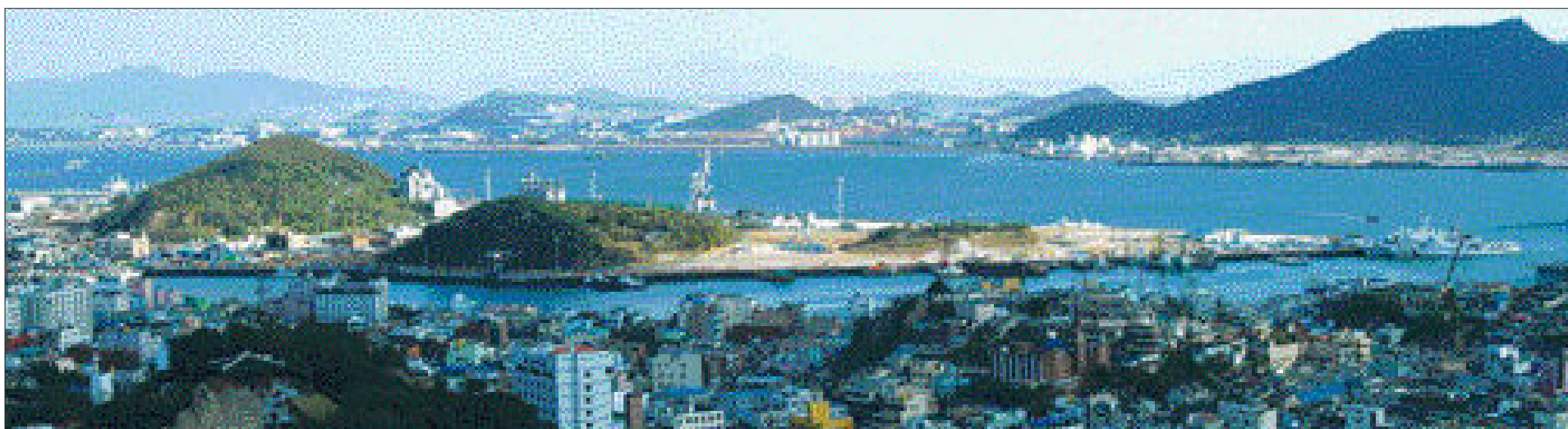
고전 총리는 통합신당 창당방식에 대해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광장에서 만나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식이 좋다고 본다. ‘헤쳐모여’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전 총리가 헤쳐모여식 통합신당 창당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내 정계개편론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의 범위와 관련, 그는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 냉전 수구세력, 좌우 양극단 세력을 제외하고 합리적인 진보세력에서부터 개혁적 보수세력까지 아우른다”며 “중도 개혁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들은 어느 정당에 속해 있든지 함께 신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당 당내 친노(親盧) 세력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지키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고, 저는 현재 정부여당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여당이 아닌 대안으로서 새로운 국민통합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전 총리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와 관련,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어느 특정정당, 열린우리당 중심의 재창당이라든지 그러한 정당에서 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옛 모습 되찾은 삼학도

이남영의 '목포의 눈물' 노랫말과 함께 식민지의 애환이 서린 삼학도가 33년만에 복원돼 목포시민과 국민들에게 돌아왔다. 목포시는 삼학도 세 봉우리중 지난 1973년 부두 매립공사로 사라졌던 작은 봉우리와 절

개됐던 가운데 봉우리를 2000년부터 복원하기 시작, 6년만에 삼학도의 외형을 살려냈다. 유달산 중턱에서 내려다 본 삼학도와 목포항 모습. >관련기사 14면

/목포=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S프로젝트 포함 서남해안 대규모 개발

<목포~무안~영암~해남>

정부, 2016년까지 7조 투자 관광·물류거점 육성

목포·무안·영암·해남을 연결해 오는 2016년까지 모두 7조여 원(예산+민간자본)을 투입, 복합관광단지과 물류거점 등을 육성하는 정부 차원의 '서남해안권 발전구상'이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싱가포르 자본유치를 통해 추진했던 서남권개발을 위한 'S

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계획)를 포함해 새로운 발전 계획을 세운 상태이며, 금명간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해안권 발전 구상'에는 ▲다국적 농수산물 유통기업 유치 및 물류거점 건립 ▲대형 면세 쇼핑단지

크루즈 전용부두 등 해양레저 거점 조성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기지 확보 ▲세라믹 등 첨단 신소재 산업 종합지원센터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오는 2016년까지 해당 지역의 제조업 생산은 6천500억원에서 16조원, 서비

스업 고용은 6만 5천 명에서 14만 9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구상에 따른 분야별 25개 세부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모두 7조 1천 800억원의 재원이 투자되며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 등 기반조성사업에 예산 5천7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민간 자본 6조 6천100억원을 유치해 면세 쇼핑센터·종합테마파크 등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 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 경제수석이 단장을 맡는 (가칭) '서남해안권 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민간기업 등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서남해안권발전촉진특별법'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서남해안 개발을 지원해온 서남해안포럼 관계자는 2일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남해안권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같은 구상을 마련했으며 곧 세부적인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안다. 또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조성사업(J프로젝트)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기기자 unipark@kwangju.co.kr

비공식 6자 회담 검토

APEC01전 개최 추진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담을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일정(18~19일) 전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6면>

북한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북·미·중 3자 비밀회동을 통해 극적으로 도출해낸 6자회담 재개 합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중국에서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후원학원 장학55년 역사인정
남부대학교
www.nambu.ac.kr
▶ 성남캠퍼스 (062)228-0114 ▶ 목포캠퍼스 (062)228-0100

새로운 담사기는 대학
진남과학대학
www.jinam.ac.kr
▶ 진남캠퍼스 (062)228-0100 ▶ 목포캠퍼스 (062)228-0100

대한국립가정보
TEL. 062-372-4444 FAX. 062-372-4444

가인만인
이만만인
국내 최고 권위의
물기전문지

성명서

광주 봉선·진월지구 남양휴튼 아파트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양휴튼 아파트 관련 CBS 광주방송 노컷뉴스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일 CBS광주방송은 노컷뉴스를 통해 '광주국세청, 남양건설 아파트 계약자 전원 자금추적 검토'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1. 이에 대해 저희 회사가 광주지방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광주 지방국세청은 당첨자 명단과 실계약자 명단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 출처 추적조사 역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 또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경제가 장기침체된 상황에서 경제 전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자금출처 추적조사 등은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 봉선·진월지구 남양휴튼 아파트에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께서는 사실과 다른 기사에 절대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 일동은 이번 보도와 상관없이 아파트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서비스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고 성실·책임시공하여 반드시 최고 명품아파트로 보답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3일